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건축·도시를 만들어 가는 덴마크건축센터

(Danish Architecture Centre: DAC)

임정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

덴마크 정부는 1994년 제1차 국가건축정책을 발표한 이래 수준 높은 건축의 발전과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성장을 목표로 두고 덴마크를 건축문화 강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가장 최근 개정한 건축정책은 2014년에 발표한 ‘사람을 최우선으로(Putting People First)’로, 64개의 추진 계획을 통해 ‘건축디자인’, ‘에너지 효율’, ‘사회적 지속가능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진 계획으로 시민들의 건축경험 증진과 민주주의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건축이 삶의 지속가능성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사람을 중심에 둔 정책과제의 실현에 있어 덴마크건축센터(Danish Architecture Centre: DAC)는 구심점의 역할을 한다. DAC는 덴마크 국가기관으로 지역과 국가 그리고 세계적 레벨에서 건축정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가(정부)-민간(기업체)-시민의 매개 기관으로서 덴마크의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건축·도시정책 실현의 추진체 역할을 하고 있는 DAC에 대해 소개한다. 이를 통해 건축과 도시 발전을 위한 지식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건축·도시 분야 싱크탱크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DAC 전경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사람을 중심에 둔
정책과제의 실현에 있어
DAC는 구심점의
역할을 한다.
DAC는 덴마크
국가기관으로 지역과
국가 그리고 세계적
레벨에서 건축정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비전과 역사**

DAC는 1985년 덴마크 문화부와 경제산업부, 비영리재단인 레알다니아(Realdania)***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가 비영리기관으로, 덴마크 건축 환경 전반에 있어 독창적이고 최고 수준의 교육과 이를 위한 프로젝트 발굴 및 구현을 비전으로 두고 있다. 기관 운영의 가장 주된 목표는 건축과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의 길을 열며 건축의 문화·경제적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축과 도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주제의 전시회를 개최하고 교육 등을 통한 전문화를 도모하며 정보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세미나와 방문객들을 위한 도시 가이드 투어를 진행하는 등 전문적이고 문화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조직 구성

DAC는 디렉터와 매니지먼트 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조직은 6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부(Culture Department)에서는 일반 문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투어 프로그램·교육 및 이벤트 등을 총괄하고 있으며, 섹터부(Sector Department)는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그 외 카페 및 콘퍼런스 부서(Cafe and Conference Department), 상점 및 방문자 센터 부서(Shop & Welcome Center Department),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부서(Marketing & Communications Department), 행정·인사 및 재정 부서(Administration, HR and Finance Department)로 구성되어 부문별 업무를 처리한다.

재정 운영****

DAC는 1986년 덴마크건축가협회, 건축사무소협회, 컨설팅엔지니어협회, 계약자협회, 무역·공예협의회, 덴마크산업연합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시작되었다. DAC의 주요 재원은 ‘공공서비스 활동을 위한 펀딩’으로 레알다니아와 덴마크 정부(산업부·문화부) 간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지원금은 약 1,880만 덴마크크로네(DKK, 약 32억 9,000만 원)이다. 공공-민간 파트너십 운영은 덴마크 정부의 ‘DAC의 일반 운영 재원은 공공 수단만으로 한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정책 목표에 부합한다. 이를 통해 덴마크 정부는 ‘의지와 함께하는 성장, 문화와 체험경제의 덴마크(Growth with will, Denmark in the culture and experience economy)’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활동을 추진할 수 있으며, 레알다니아는 재단의 자금지원전략과 ‘확산과 토론’ 부문의 사업계획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 The Next Green 홈페이지(<http://thenextgreen.ca/2017/06/07/danish-architectural-policy/>)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

** DAC 홈페이지(<https://dac.dk/en/about>)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

*** 레알다니아 재단은 모기지 신용기관으로 시작한 자선단체로 건조물 환경에 의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며, 관련된 크고 작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http://www.realdania.org>).

**** DAC 홈페이지(<https://dac.dk/en/about>)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

“기관 운영의 가장 주된 목표는 건축과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의 길을 열며 건축의 문화·경제적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과 민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프로젝트는 운영보조금만으로는 그 비용이 충당되지 않는다. 이에 프로젝트 관련 수입과 정부부처의 재원, 기금, 후원,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협조협약에 따른 보조금 등 다양한 자금 운용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개별 프로젝트별로 자금 조달 기관과 DAC 간 계약을 체결하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DK2050 프로젝트*

덴마크 정부는 2011년 2050년까지 덴마크를 ‘탈화석연료 국가’로 만들겠다는 녹색 전환(Green Conversion) 목표를 선언하였다. 이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사회와 도시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전 국민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DAC에서는 2013년부터 2050년까지 덴마크와 덴마크 도시들의 녹색 전환을 위한 미래상과 방향을 설정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건축과 도시 부문이 마주할 도전과 딜레마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DK2050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하였다.

DK2050 프로젝트 개요

2008년 덴마크 기후변화 대책으로 설립된 ‘덴마크 기후변화정책위원회’는 2050년까지 덴마크의 녹색 전환을 위한 국가적 합의 방침 마련을 위한 보고서를 2010년에 발간하였다. 이 국가 방침을 실행하기 위해 2013년 DAC는 녹색 전환과 관련된 주요 사회적 플레이어(social player)와 협력하여 DK2050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DK2050 프로젝트의 목적은 우리가 녹색사회에서 일하고 살기 위해서 현재와 미래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이드할 수 있는 전문적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다.

DK2050 프로젝트에서는 네 가지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관련 내용을 제14회 베네치아 비엔날레 건축전 덴마크관 전시를 통해 소개하였다.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것은 잠재된 미래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앞으로 나타날 동향과 사회의 추진력이 어떤 식으로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과 고민을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제시된 시나리오를 통해 미래의 가능성과 현재의 행위에 대한 질적 질문을 생산하고, 장기적 발전을 위한 혁명한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

DK2050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

DK2050 프로젝트는 2013년 11월에 시작하여 2014년 11월 콘퍼런스 개최 까지 1년간 진행되었다. DAC는 레알다니아 외에 문화부, 환경부, 산업·성장부, 기후·에너지·건설부 등 정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설정된 시나리오에 따라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할 10개의 지자체가 선정되어 프로젝트에 동참하였다.

* DAC, 「Partnership for greener Denmark in 2050」 보고서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

“DAC는 덴마크
도시들의 녹색 전환을
위한 미래상과
방향을 설정하고,
이 과정에서
건축과 도시 부문이
마주할 도전과 딜레마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DK2050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하였다.”

덴마크의 녹색 전환을 위한 시나리오는 처음 DAC에서 개최된 CAMP 0 워크숍을 통해 시작되었다. 이 워크숍에서는 전문가, 정부 관계자, 시민 등 모든 관련 주체들이 모여 지자체별·지역별 요구사항이나 관점 및 관심사항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첫 번째 시나리오 발전의 결과가 CAMP 1 워크숍에서 발표되었다. 지자체 장들은 2050년까지 녹색 전환을 이루기 위해 덴마크 도시와 각 지역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토론하고, 국가적 2050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지자체별로 시행·추진해 온 주요 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가졌다.

지자체 간 공통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지역 경계를 넘어선 협력 ▲지자체로 이어지는 국가 정책과 계획 간의 더 넓은 일관성 확보 ▲전국의 사업체에 긴밀히 연결되는 더 강한 국가 인프라 투자 ▲무역 전략과 연관된 국가 산업전략 ▲녹색 전환과 연관된 사회적 연결성을 타깃으로 하는 작업들로 인한 시민들의 참여 ▲녹색기술, IT, 건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그 다음 진행된 CAMP 2에서는 전문가, 엔지니어, 분석가, 건축가들이 함께 관련 지식을 나누고 청사진과 시나리오를 구상하였다. 강연자들은 4개의 시나리오와 덴마크의 녹색 미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조건을 제시하며 논의를 진행하였다. 모든 강연들은 녹색 전환을 위한 정책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관점은 이후 시민 간담회와 지자체 내 토론 과정에서도 다루어졌다.

지역 워크숍에서는 시민, 지역의회, 사업주, 이익 단체가 참여하여 각각의 워크숍에서 논의된 2050 녹색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별 전략을 반영한 선언문을 작성하였다. 이때 토론 과정과 아이디어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고 기록하였다. 이러한 플랫폼은 시민들이 지역의 도시계획 전략과 건축정책 등의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와 교외 지역의 미래를 위한 시나리오는 2014년 베네치아 비엔날레 건축전을 통해 세계적 레벨에서 공유되고 논의되었다. 덴마크 파빌리온 앞에서 진행된 공개 토론회는 학제 간 접근법, 시나리오 도출 그리고 DK2050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등 여러 측면에서 다른 국가와 도시들에 영감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었다. 이어 ‘People Meeting 2014’에서 시민들은 사업가, 정책가, 전문가, 이익 단체들과 함께 18회의 토론회와 워크숍을 가지면서 덴마크의 녹색 전환을 위한 미래 시나리오들을 논의하였다. 또한 지자체와 건축가들이 네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건축적 방안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Camp 0 Trends Identified	Camp 1 Mayoral debate	Camp 2 Expert input	Local workshops in DK2050 municipalities	Architecture biennale in Venice	Debate at the architecture biennale in Venice	People's Meeting in Bornholm	Architects in dialogue with municipalities	Field trip to Venice for the municipalities participating in DK2050	DK2050 conference
November 2013	January 2014	May 2014	May 2014	June 2014	June 2014	June 2014	September 2014	October 2014	November 2014

Development of scenarios (DAMVAD & Kairos Future)

Estimates of consequences (Ramboll)

Architectural processing (MUTOPIA, WE architecture & SLETH)

DK2050 프로젝트 타임라인

자료: DAC, 「Partnership for greener Denmark in 2050」, pp.30-31

“DK2050 프로젝트에서 제시된 시나리오를 통해 미래의 가능성과 현재의 행위에 대한 질적 질문을 생산하고, 장기적 발전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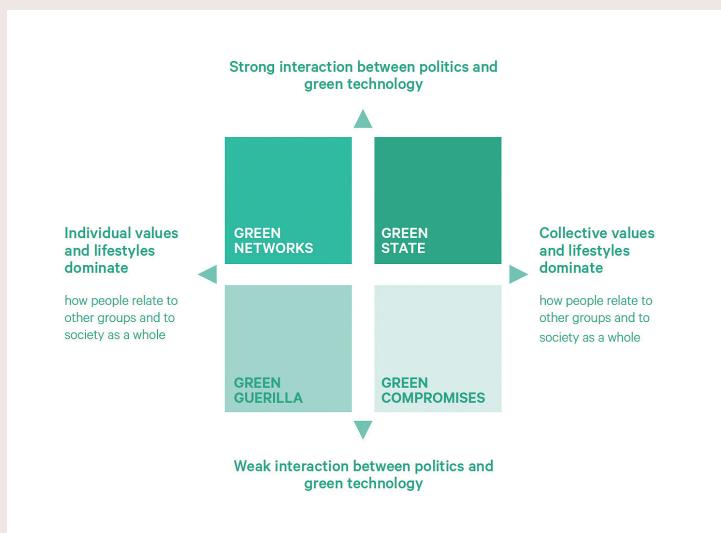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2014년 11월 DK2050 콘퍼런스를 개최함으로써 DK2050 프로젝트의 모든 참가자들이 모여 녹색 성장을 위한 최종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다.

1년간의 프로젝트 결과는 시나리오 보고서, 시나리오별 교통·에너지·자원·물에 대한 영향평가, 2050년 덴마크 도시들을 위한 건축적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이렇게 세 가지의 대주제로 출판되었다. DK2050 프로젝트에서 합의된 미래 시나리오와 추진 과제, 그에 대한 논의는 장소적·지역적·국가적으로 녹색 전환을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며, 토론과 정치적 활동을 추동하는데 활용되며, 그 과정에서 정책은 수정되어 간다. 또한 각 지방정부는 이 시나리오를 지역별 전략적 도시계획, 이를 위한 논의와 산업·혁신·교통·거주 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DK2050 프로젝트의 네 가지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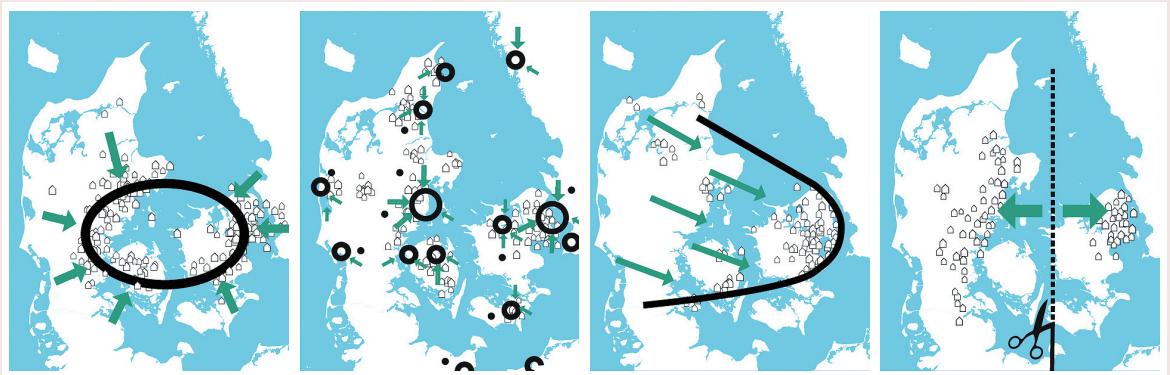
각각의 시나리오는 덴마크의 관련된 주체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행동하게 한다. 이는 DK2050 프로젝트에서 녹색 전환의 실현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적인 토론을 이끌어 내는 툴(tool)로서 ‘시나리오’를 사용한 이유이다. 리서치 기반의 컨설팅 회사인 담바드(DAMVAD)는 컨설팅 및 리서치 회사인 카리오스 퓨처(Kairos Future)의 미래학자들과 함께 네 가지의 시나리오를 발전시켰다. 이는 녹색 전환이라는 공통분모를 어떻게 덴마크와 덴마크 도시들이 발전시킬지에 대한 예측 작업이었다.

시나리오는 확실한 동향과 여전히 불확실하고 가능성 있는 발전 동향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담바드와 카리오스 퓨처는 덴마크 지방정부와 지역단체 및 사업체들과 함께 덴마크의 미래 발전 방향에 영향을 줄 변화로 도시화, 고령화, 디



DK2050 프로젝트의 네 가지 시나리오 매트릭스

자료: Ramboll, Metrics of green conversion, p.3.



HKHC를 통한 커뮤니티의 변화

자료: <https://healthylplacesbydesign.org/wp-content/uploads/2014/09/HKHC-infographic.pdf>

지털화, 기후변화, 녹색기술의 발전, 공동생산으로 제시하였다. 담바드와 카리오스 퓨처는 두 개의 불확실 축을 시작점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하나의 축은 개인 또는 공동의 가치가 미래에 지배적인지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한 축은 정책과 녹색기술들 사이에 놓인 상호작용의 레벨에 대한 것이다. 두 개 축을 중심으로 녹색 전환을 촉동하는 요인별로 네 가지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데 ‘녹색 국가(Green State)’, ‘녹색 네트워크(Green Network)’, ‘녹색 게릴라(Green Guerilla)’, ‘녹색 타협(Green Compromises)’이다.

첫 번째 녹색 국가는 중앙 집중적이고 국가 지원의 해결책으로 100% 재생가능 에너지, CO₂ 중립 그리고 화석연료로부터의 독립 등을 통해 녹색 전환의 완성을 성취하는 시나리오이다. 녹색 네트워크는 열의 있는 국가 주도의 환경 정책과 시민·회사·도시의 상향식 계획을 결합하여 탄소 80% 감소를 이루는 것이다. 녹색 게릴라는 국가와 조직성·통합성은 낮으나 높은 수준의 개인적 어젠다들이 결합되어 탄소를 60% 낮추는 시나리오이다. 마지막으로 녹색 타협은 기준점이 되는 시나리오로, 2014년에 채택된 것들 이외에 새로운 정책 및 계획이 없는 상태로 40%의 탄소 감소 목표를 달성하며, 유일하게 녹색 전환보다 성장에 집중한 국가 발전에 기초한다.

DAC는 DK2050 프로젝트를 총괄하면서 프로젝트 파트너인 덴마크 예술재단 Rambøll과 건축 및 예술 작업을 통해 이를 시나리오를 발전시켰다. 특히 MUTONIA, SLETH와 WE 세 곳의 건축사사무소와 함께 네 가지 시나리오를 시각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각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교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MUTONIA는 시나리오별로 에너지와 교통인프라, 도시화 사이의 관계를 국가적·지역적 스케일로 분석하여 덴마크 도시들의 확장과 수축이 도시 지역과 도시 간 네트워크, 탄소중립 사회로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네 가지 지도로 표현하였다.* 또한 네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지리적 변화를 ‘Magnet(중앙집중형)’, ‘Star Sky(다중심형)’, ‘Comet(혜성형)’, ‘Division(동서 구분형)’ 4개의 도시화 모델로 제시하고, 전문가 및 지방정부 관

* <http://mutonia.dk/projects/urban/dk2050/>

“전시·교육·시민강좌 등을 통해 덴마크 건축과 도시의 발전 방향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새로운 도전 과제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DAC는 사람을 중심에 두는 덴마크의 건축과 도시정책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물 한편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DAC

계자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파트너와 함께 시나리오별로 녹색 전환 및 도시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몇 개 도시를 대상으로 추가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Rambøll은 녹색 전환으로 가는 네 가지 시나리오에서 교통, 에너지 공급, 자원, 물 공급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고 영향을 평가하여, 시나리오별로 국가와 도시가 직면하게 될 딜레마를 도출해 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덴마크 건축도시정책과 DAC

DK2050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듯이 DAC는 국가기관의 위상을 취하며 덴마크의 건축·도시 미래상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가적 어젠다를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민간 부문 간의 목적 공유와 협력을 이끄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시·교육·시민강좌 등을 통해 덴마크 건축과 도시의 발전 방향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새로운 도전 과제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사람을 중심에 두는 덴마크의 건축과 도시정책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건축·도시정책의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정책을 만드는 기관, 관련 전문가, 지방정부, 민간 기업 그리고 시민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이를 기반으로 분야별 전략을 설정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과정을 만드는 일이어야 할 것이다. DAC는 다양한 주체를 모으고 조정하며 덴마크의 선도적인 건축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http://mutopia.dk/projects/urban/dk2050/>

** 분석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은 「Metrics of green conversion」보고서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INTERVIEW

Rikke Brams

DAC 마케팅·커뮤니케이션부
커뮤니케이션·콘텐츠 담당

① 건축과 도시계획(또는 전시기획)을 위한 별도의 연구팀이 조직되어 있습니까?

- A DAC는 레알다니아 재단, 관련 어젠다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조직과 협력하여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또한 다른 연구기관, 전시기관과 함께 전시 기획과 운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현재 준비 중인 전시인 'OVE – Ove Arup and the Philosophy of Total Design' 전시는 런던의 V&A 박물관과 협력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이 전시를 위해 몇 년간 함께 리서치 작업을 해왔다. 다른 사례로 개막 예정인 덴마크 건축가 요룬 Utzon 개인전 'Utzon, Horisont'의 경우는 Utzon Center와 함께 기획하고 박사 연구자가 직접 큐레이팅하고 있다. 현재 전시 중인 'Welcome Home' 또한 많은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 하였으며, 연구 작업 결과물은 전시와 도록 외에 문화시민과 전문가 대상의 이벤트를 통해 담아내고 있다.

② 덴마크 건축과 도시환경을 위한 정책 결정에서 DAC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A DAC는 기업부, 문화부, 교통·건설·주택부 그리고 98개의 덴마크 지방정부와 함께 파트너로 협업하고 있다. DAC는 건설 부문(건축가, 엔지니어, 도시계획가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워크숍과 토론회를 주최하며, 정부 부처에 현재 덴마크의 현황 또는 부문별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율러 덴마크 정부가 전략적 도시 거버넌스(Strategic Urban Governance)의 개념을 정립하고 구축하는 데 조언을 제공한다. 최근 정부의 '사람을 최우선으로' 건축정책은 건설 환경과 그 안에서의 삶을 위한 기본틀을 구축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DAC는 '시민, 어린이,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건축', '건축과 민주주의, 환경, 사회, 문화', '삶의 질', '혁신과 국제적 잠재력' 등의 정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DAC와 함께 새로운 건축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③ DK2050 프로젝트 외의 진행하고 있는 정부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사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 A DAC는 건축 관련 정부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DAC는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건축 수업 과정, 4~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관련 교육과정, 기타 교육자료 및 고등학생 서머스쿨 과정 등을 개발하고 있다. 건축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건축정책 작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새로운 콘셉트의 카탈로그를 개발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기업경영진·운영자·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전략적 도시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전략적 도시 리더십을 위한 영감과 툴도 제공한다. 2016년 COWI사가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이 전략적 도시 거버넌스와 공동의 전문 언어에 대한 인식을 국가적 레벨에서 공유하는 데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④ 건축 및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국가와 DAC가 그리고 있는 미래상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 A DAC는 넓은 계층의 국민을 타깃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시, 이벤트, 프로젝트, 팟캐스트, 투어 프로그램, 출판, 협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덴마크 건축에 대한 비전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 보육기관,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 네트워크, 이벤트, 투어 프로그램을 건축 및 도시 부문과 전문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